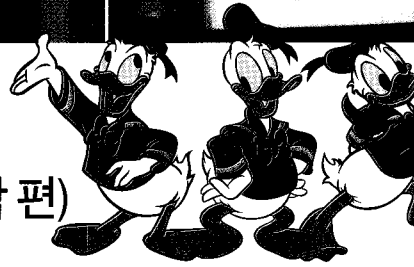




「오리 박물관」 박상용관장의 재미있는 오리이야기 | 세 번째(마지막 편)



우리나라 속담에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흔히 말하기를 어찌다가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 말을 쓴다.

이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지대를 점령하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던 1950년 8월 4일, 낙동강변 낙동리(낙정리)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 12연대 11중대 앞에서는 1개 대대 정도의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 필사적인 도하를 시도하고 있었다.

치열한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 유엔 항공기에서 네이팜을 퍼부어 적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신이 난 국군용사들은 기관총의 총열이 별게질 때까지 사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때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포탄과 국군의 사격으로 적이 쓰러지는 모습을 바

라보던 11중대장(강영질 대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야! 낙동강에 오리알 떨어진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비로소 정신이 든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전장에 메아리쳤다.

그 후 '낙동강 오리알'은 국군용사들이 인민군을 조롱하는 뜻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낙동강하면 자연스럽고 떠올려지는 것이 '낙동강 오리알'이다. 흔히 이도 저도 아닌채 혼자 뒤쳐져 처연하게 남게 된 왕따 신세를 '낙동강 오리알됐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오리보(기러기보)'라는 것이 있는데 전통혼례의 전안례(奠雁禮)에서 사용되는 나무로 깎은 오리를 싸는 보자기인데, 보자기로 나무오리를 싼 후 네 귀를 모아 근봉(謹封)이라 쓴 띠지를 두른다.

전안례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처음 행하는 의례이다. 보는 음양을 상징하는 청홍의 두 천으로 만든 보자



Duck Dog (오리사냥개)

기로 네 귀에는 술을 달아 떼을 내었다. 또한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과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한 쌍의 원앙이나 기러기·오리 그리고 길상어문으로 '수복강녕(壽福康寧)' 이란 글을 도안화하여 수 놓았다.

어느 날 부산의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자 문학박사이신 분께서 오리박물관을 둘러보신 후에 오리에 대한 재미난 질문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독수리하고, 호랑이하고 오리랑 셋이서 어느 날 시합을 했는데 누가 1

등을 했을까?” 라는 문제였다. 정답은 오리이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하늘에서만 잘 날기만 하고, 호랑이는 육지(땅)에서만 웅맹하게 잘 달리지만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서 헤엄도 못하는데, 오리는 하늘도 잘 날고 육지에서도 잘 놀고 물에서도 잠수나 헤엄을 잘 치니까 시합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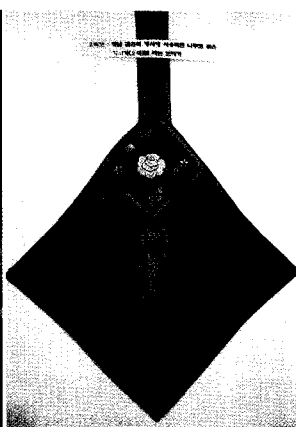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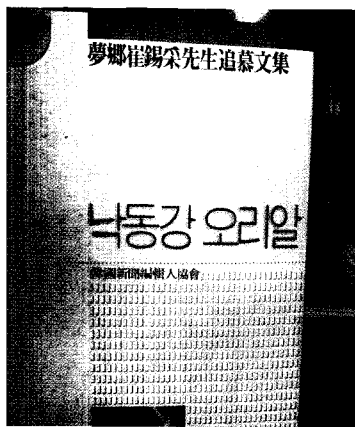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를 은유한 재미난 얘기로서 집안 살림살이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오리를 청둥오리라고 부르고, 돈도 잘 벌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집도

잘 보는 오리를 황금오리라고 부르고, 집안 살림도 잘 못하고 돈도 잘 못 벌면서 얼굴도 못생기고 일찍 죽는 오리를 아사가오리라고 부른다고 배꼽을 잡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오리가 영어로 'Duck(덕)' 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옛날 시골마을에 닭과 오리가 있었는데 닭을 모르고 'Duck(덕)' 이라고 불려서 그때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숫새(오리)가 북쪽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북쪽 시베리아(북반구)가 철새오리들의 출발지인 고향

'오리보(기러기보)' 라는 것이 있는데 전통혼례의 전안례(奠雁禮)에서 사용되는 나무로 깎은 오리를 썬 보자기인데, 보자기로 나무오리를 썬 후 네 귀를 모아 근봉(謹封)이라 쓴 띠지를 두른다.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과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한 쌍의 원앙이나 기러기·오리 그리고 길상어문으로 '수복강녕(壽福康寧)' 이란 글을 도안화하여 수 놓았다.



이고 임금님이 계신 곳이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다는 설(設)도 있다.

오리박물관에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용하던 양은 도시락에 도날드덕 오리그림을 볼 때면 웃음과 옛 추억과 향수가 갑자기 다가오는 것 같다.

그리고 전라남도 줄포라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뒤져서 구한 커다란 옹기에 예쁜 꽃 한 송이와 오리 한 마리가 그려진 옹기를 발견하고 구했을 땐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여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좋고 보람



을 느끼기도 했다.

내 주위의 사물을 통해 오리를 표현해 보고자, 옛날 목수들이 사용하던 먹통과 대패와 베를 짜던 북, 똥을 퍼던 똥바가지, 소 여물을 줄 때 사용한 소죽거리라는 민속물을 합성하여 오리작품을 만들기도 했으며 옛날에 사용한 쇠붙이인 아령, 인두, 망치, 쟁기, 문걸이 등을 이용하여 일명 옛날 녹슨 쇠오리작품들도 만들어 보았다.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훤으로 구워서 만들어진 피리인데 이탈리아어로 작은 오리, 거위라는 것을 알고는 부산의 유명한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선생님께 가서 몇 달 동안 직접 배워 보기도 했으며, 서울에 오카리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에게 사정사정해서 진짜 오리모양의 오카리나 한 쌍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리 박물관에 전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리 아파트’란 이름으로 옛날 문짚과 민속소품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 상상력과 옛날 우리나라 민속품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껴 보았다.

유명한 미술작가가 꿈인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얼마 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모사해서 그린 모나리자 덕(Monariza duck)과 박물관 지킴이인 우리집 코카스파니엘 강아지 초상화, 일명 오리 사냥개(Duck

Dog)그림을 정말 자랑스럽게 한쪽 벽면에 전시해 놓았다. 제가 미친 듯이 열심히 오리를 모온다는 소문이 잘 아는 분의 시골 할머니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오리를 닮은 고구마를 주시길래 어찌나 고마운지 썩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한 장 드리고 오리박물관에도 보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리박물관에 가족과 함께 구경하러 온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아이가 마침 자기가 가지고 놀던 딱지 중에 오리그림이 있는 동그란 딱지 하나를 선물(기증)했는데, 저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오리기증품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놀이도구 중의 하나인 ‘화투(花鬪)’에도 원래 그림 대신에 오리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최근에 디자인회사를 통해서 구하여 전시해 놓았다.

오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함을 주는



지 그 중에서 오리농법으로 지은 오리쌀을 직접 현지
에 가서 구경도 하고, 사서먹어도 보고 오리쌀 포장용
봉투를 곱게 접어 전시도 해놓았다.

오리박물관에 유치부나 초등학생들이 관람하러 온 경
우에는 오리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오리그림 그리
기, 오리 종이접기, 오리박물관을 견학하고 보고 들은
소감적기, 오리와 관련된 악기(오리 사냥을 할 때 유인
하는 피리, 오리 인디언 플룻, 오리모양 마라카스, 특
경, 오리 탬버린)등을 같이 체험해보고, 오리 모양 떡
살 위에 화선지를 올려놓고 탁본을 직접 해 보는 프로
그램도 체험하고 있다.

때로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상품이 걸린 퀴즈문제를
내기도 한다. 옛날 결혼식 때 왜 신랑이 나무오리(기러
기, 목안)을 안고 갔을까요? 솟대 위에 오리모양을 다
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리가 물에 뜨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겨울철에 오리는 물 속에서 왜 춥지 않을까
요? 오리농법이라고 하면서 오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데 어떻게 지을까요?

돌밭퀴즈문제를 내면서 맞히면 오리모양 캔디(사탕)
를 상품으로 주기도 한다.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가
는 출입구 문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이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오리피난유도등!! 2층 오리박물관에 화재
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오리 친구들이 오리그림이

그려진 피난유도등을 보고 대피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특경(特磬)이라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하
던 한국전통 악기중 석부(石部)에 속하는 몸울림 악기로
서 문묘나 종묘 제향악 행사시 음악이 끝날 때 치는 것
으로서 각퇴(소뿔)로 두 마리 오리형상의 조각물 위에
매달려있는 옥돌을 한번 쳐보면서 소원성취가 이루어
지도록 기원을 한다.

‘오리 박물관’ 박상용 관장의 재미있는 오리 이야기
를 아쉽게도 이번 글로 마치면서 오리를 사랑하고, 좋
아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올해에는 오리가 상징하는 행
복, 금슬, 사랑, 소망, 평안, 풍년을 다 이루시고 건강
하시길 바란다.

필자도 17년동안 열심히 오리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
의 오리박물관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오리를 사랑하고, 문화공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
유하면서 우리 이쁜 오리들이 주는 기쁨을 함께 나누
고 느끼려 한다.

그리고 (사)한국오리협회가 오리마을에 오리에 대한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리아~기리아~! 파이팅! 팍 팍 꽤~악!

※ 박상용 관장의(오리 박물관)Tel : ☎055-389-1311

